

<http://dx.doi.org/10.17703/JCCT.2022.8.2.163>

JCCT 2022-3-21

경기도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 고등학생의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변화: 보건과목 중심

Changes in Career Choice Commit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Gyeonggi-do Cluster Curriculum: Focusing on Health

양혜경*

Hye Kyung Yang*

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교육과정 참여 전 후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단일군 전후 설계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3개 고등학교의 보건 클러스터에 참여한 2학년 고등학생 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는 2021년 3월 8일부터 2021년 12월 29일까지 진행되었고,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참여 전 보다 참여 후에 진로결정몰입($t=-9.01,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t=-8.45, p<.001$), 진로성숙도($t=-3.63, p=.0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클러스터 교육과정,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Abstract This study is a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study to confirm changes in career choice commit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before and after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 in the Gyeonggi-do health cluster curriculum. The study was conducted on 47 second grade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health clusters of 3 high schools in Gyeonggi-do.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March 8, 2021 to December 29, 2021,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with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paired t-test. As a result of the study,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health cluster curriculum improved their career choice commitment($t=-9.01, p<.00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t=-8.45, p<.001$), and career maturity($t=-3.63, p=.002$)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ter participa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a standardized program of the health cluster curriculum that can improve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of high school students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 Cluster Curriculum, Career Choice Commit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정희원, 단국대학교 강사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1월 26일, 수정완료일: 2022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8일

Received: January 26, 2022 / Revised: March 1, 2022

Accepted: March 8, 2022

*Corresponding Author: joabada12@naver.com

Dept. of Nursing, Dankook Univ, Korea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탐색하여 직업을 설계하며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자신이 탐구해야 할 전공학과 선택과 함께 자신의 직업 및 진로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진로확립의 결정적 시기이다. 진로는 대학의 전공학과에 대한 선택뿐만 아니라 직업, 그리고 일생동안 하는 일의 전체를 말하는 개념이다[1]. 진로결정은 초등학교부터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며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1].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에 의해 체계적인 진로결정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교성적이나 주변의 권유 등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2].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되는 과정이 소홀히 되거나, 확신이 없는 상태로 결정된 경우 대학에 진학 후에도 전공만족도가 낮아지고 미래 자신의 역할에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3].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은 수시와 정시 등 복잡한 입시제도하에 학업 성적 뿐만 아니라 진로에 맞게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계획하면서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Kim[4]은 학생들이 진로결정을 미루고 진로결정에 두려움이 큰 이유는 진로선택 과정에서 몰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진로결정몰입은 직업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고 진로목적을 위한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5].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몰입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진로목적을 위해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6].

Kim[7]은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제시하였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8]. Kim[9]은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10].

Lee 등[11]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목표 설정 시 적극적인 수행을 가져오고 그 결과는 긍정적인 정서

반응으로 나타나 높은 진로성숙도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 Lee[12]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의 매우 중요한 예측변수라고 하였다.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에 부모의 관여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진로성숙을 이루어야 하지만 [13]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인식 및 정보 부족, 미성숙한 현실감 등으로 진로결정에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상담교사의 배치 및 ‘진로와 직업’의 교과목을 개설[14]하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인근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진로와 연계된 강좌를 개설하여 특성화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5].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클러스터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진로와 연계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설하고 있다[15]. 최근 COVID-19 감염병 유행 및 높은 취업률 등으로 인하여 보건의료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클러스터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건과목이 다수 개설되었다. 보건계열 클러스터 교육과정은 ‘보건’ 또는 ‘공중보건’, ‘보건간호’, ‘기초간호’ 등의 교과목명으로 개설되어 보건계열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경기도에서 선택형 교육과정을 시행한 이후 선택형 교육과정이 고등학생들의 진로계획 또는 진로결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간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대해 이루어진 선행연구로는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16]와 체육교과에서 학생들의 참여경험[17] 및 지도 교사의 경험에 대한 연구[18] 그리고 사회과목[19]에서 교과과정 대한 연구,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연구[20]에 불과하고 보건 교과목의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부터 교육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정착을 위해서도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선 시행된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진로결정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서 제시한 진로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를 확인하여 진로 교육과정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 전 후 진로결정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 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정도를 측정하고 비교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 전 후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설계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3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수 산정을 위해 G 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살펴 본 선행연구[21]에 근거하여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4, 검정력 0.80을 적용하여 41명이 산출되었다. 탈락율 10%를 적용하여 총 47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표본의 크기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몰입이란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고 진로결정에 열의를 보이며 진로목적을 향해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5]. 본 연구에서는 Blustein 등[22]이 개발한 도구를 Choi[23]가 번안한 도구로 이용하였다. 도구는 28개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Chi[23]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이나 진로결정성취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말한다[24].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24]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를 Lee[12]가 중고등학생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25개 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1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이란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의 이해를 통해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달과업 수행 정도의 상대적인 위치[25]로서, 본 연구에서는 Crities[26]의 진로성숙도 검사를 Kim[27]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47개 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4. 연구진행절차

1) 사전조사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개강 첫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절차에 대하여 설명 후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2) 클러스터 교육과정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은 3월에 개강하여 학기당 34주로 1학기과 2학기에 걸쳐 1년간 진행되었다. 매주 방과후에 1일, 2시간씩 수업이 이루어졌고, COVID-19 감염병의 유행으로 경기도 교육청과 각 학교의 방침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면서 운영되었다. 개강일에 보건 교과목 소개를 하고, 수업운영 계획에 대해 안내하였다. 각자 희망하는 보건분야의 전공학과나 직업에 대해 공유하면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 및 전공을 알아보고 진로적성검사를 수행하였다. 보건분야와 관련된 전공학과와 대학들을 소개하고, 취업분야 및 직업의 종류들을 안내하고 탐색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전 기간에 걸쳐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초적인 전공지식을 학습하면서 이론과 실습, 토론, 독서, 포트폴리오 작성 등을 통해 다양한 보건분야의 세계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3) 사후조사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종료 한 후, 각 학교의 중앙일에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조사 및 수업의 전 과정은 본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5.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경기도 지역의 G고등학교, D고등학교, B여자고등학교에서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2학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8일부터 2021년 12월29일까지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절차는 경기도의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3개 학교에 허가 와 협조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클러스터 운영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자료의 비밀보장 및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득 한 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게 하였고, 작성 후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이었다.

본 연구는 참여대상자를 보호하고 윤리적 타당성을 위하여 헬싱키 선언의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과정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의 자율성 보장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 중단을 대상자가 결정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 자 정보의 익명처리와 비밀보장,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연구종료 후 즉시 폐기됨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약속하고 명시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양적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사전사후 분석은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모두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남학생 8명(17%), 여학생 39명(83%)이었다. 클러스터 교육과정 지원동기는 대학진학 준비를 위해서가 42명(89.4%)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7)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female	39(83.0)
	Male	8(17.0)
Grade	2nd	47(100%)
Motive of participation.	To prepare for college	42(89.4)
	Interest in health	2(4.3)
	Friend's suggestion	2(4.3)
	Parental recommendation	1(2.1)

2.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정도

대상자의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5점 만점으로 진로결정몰입은 2.53(±.23)점이었고, 진로성숙도는 3.17(±.34)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31(±.4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진로결정몰입,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정도

Table 2. Degree of Career Choice Commit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variables	Min	Max	M±SD
Career Choice Commitment	1.0	5.0	2.53 ±.2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2.6	5.0	3.31 ±.45
Career Maturity	2.3	5.0	3.17 ±.34

3.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사전 사후 비교

연구 대상자의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 전 진로결정몰입은 2.53(±.43)점이었으나, 참여 후 3.88(±.5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9.01,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교육과정 참여 전 3.31(±.39)점에서 참여 후 3.77(±.61)점으로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8.45, p<.001). 진로성숙도는 교육과정 참여 전 3.17(±.45)점에서 참여 후 3.90(±.59)점으로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63, p=.002). 진로성숙도의 하부요인으로 진로관여도가 참여 전 2.26(±.38)점에서 참여 후 3.68(±.25)점으로 1.42(±.32)점 향상되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Table 3).

표 3.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 전 후 비교

Table 3. Comparisons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pre and post-test

Variables	categories	Pre	Post	Difference	t	p
Career Choice Commitment	Total	2.53±.43	3.88±.51	1.35(±.47)	-9.01	.00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otal	3.31±.39	3.77±.61	0.46(±.50)	-8.45	.001
	Job information	3.71±.53	4.12±.47	0.41(±.50)		
	Goals choice	2.97±.40	3.64±.56	0.67(±.48)		
	Future plans	3.15±.53	3.60±.51	0.45(±.52)		
	Problem solving	3.33±.34	3.69±.25	0.36(±.30)		
	Self-evaluation	3.41±.65	3.82±.47	0.41(±.56)		
Career Maturity	Total	3.17±.45	3.90±.59	0.73(±.52)	-3.63	.002
	Career confirmation	3.41±.41	4.32±.40	0.91(±.41)		
	Career involvement	2.26±.38	3.68±.25	1.42(±.32)		
	Career independence	3.21±.51	3.83±.63	0.62(±.57)		
	Career choice attitude	3.27±.41	3.77±.52	0.50(±.47)		
	Career compromise	3.68±.55	3.91±.41	0.23(±.48)		

IV. 논 의

본 연구는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를 확인하여 진로와 연계된 선택형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다.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지원동기는 보건계열 대학 진학 및 입시준비를 위해서(89.4%)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는데,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본 목적인 진로탐색 보다는 생활기록부의 비교과 활동 등 진학을 고려하여 수강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o[17]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수강목적이 해당학과 진학에 도움이 되고자 수강을 지원한 학생이 대부분이었다는 보고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 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몰입은 참여 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하였다.

진로결정몰입은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고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거의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Harren[28]은 진로결정 몰입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몰입과 탐색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개의 요소는 단절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정보를 경험하면서 직업적인 선호가 구체화 되어 간다고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1년간의 보건과목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통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직업의 종류와 직업의 세계를 알아보고, 그들의 세계를 이론으로 학습하고 실습으로 간접 경험하는 탐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몰입이 향상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해 이른 시기부터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몰입이 높다는 Choi[23]의 연구와 맥락이 같다.

Kim[6]은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몰입은 학교생활적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학업성적 뿐만 아니라 수시 전형등으로 인해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실행하면서 진로목적을 위해 꾸준히 계획하고 실행해 갈 수록 학교생활적응도 높다고 하였다.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방과 후 별도의 시간을 내어 꾸준히 자신의 진로 및 진학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 진로결정몰입이 향상되었다고 파악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교육과정 참여 후 3.77(±.61)점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점수와 모든 하위영역에서 사후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측정도구를 적용한 Kim 등[29]의 연구에서도 중재 후 4.26점으로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Kim 등[30]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직업탐색 및 정보습득 활동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으로 확인되었다. Kim 등[29]은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을 직접 실행에 옮겨 보는 과정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고등학생들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진로와 진학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접적인 조언을 듣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파악된다.

Lee[12]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는데, 본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도 진로성숙도의 전제점수와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하였다. Im[31]은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별도의 독립된 교과로 전문교사에 의해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경기도 클러스터 교육과정은 수능과목과 별도의 독립된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고, 보건과목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교사에 의해 수업운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들이 진로성숙도의 향상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건 교과목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교육 참여 후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진로와 연계된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참여 전 후 비교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진로결정 관련 변인의 변화를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보건과목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 전 후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고등학생들의 진로와 연계된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전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점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참여 전 보다 참여 후에 진로결정몰입($t=-9.01$,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t=-8.45$, $p<.001$), 진로성숙도($t=-3.63$, $p=.0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보건과목에 한하여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통한 진로결정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므로 클러스터 교육과정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개설된 다른 교과목에서도 반복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교 집단이 없어 변화관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대조집단의 연구설계를 통해 진로결정의 변화를 관찰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C. K. Kim. Career education and career counseling. Seoul: Dongmoonsa. pp. 23-28. 174-195. 2001.
- [2] I. O. Moon, G. 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83-91. 2010. DOI: 10.5977/JKASNE.2010.16.1.083
- [3] M. J. Im. Social Welfare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Research on: Focusing on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Gangnam University. 2000.
- [4] Y. J. Yoon.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personal beliefs on career decision commitment effect. Master's thesis. Gyung-gi University. 2013.
- [5] Blau, G.L. Further exploring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3), pp. 284-297. 1988.
- [6] H. W. Kim.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commi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value and school life adjustment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facility environment. 18(1). 59-68. 2020.
- [7] T. H. Kim. College students' commitment to career choice, family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pp 127-128. 2013.
- [8] Taylor, K, M., Betz, N. E.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pp. 63-81. 1983.
- [9] O. K. Kim.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lann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 ability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Joong-Ang

- University. 2018.
- [10]J. Y. Hwang.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related variables. Doctoral thesis Gaemyung University. 2015.
- [11]H. L. Lee, M. S. Chun.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decision-making ability and career-making self-efficacy on the level of maturity of medical consciousness.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7(2). 106-128. 2004.
- [12]E. K. Lee. Effect of self-efficacy on career development. Doctoral thesis Ehwa University. 2001.
- [13]Sharp R. S.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Cengage Learning. 2016.
- [14]J. S. Oh, "Career counseling teacher's perception of the roles and tasks : the analysis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7, No. 2, pp. 41-64, 2014.
- [15]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Curriculum Cluster Operation Teacher's Business Manual*, Curriculum support department. 2015.
- [16]D. H. Yoo, E. S. Kim, Y. M. Mo. A Study on the School Cas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Korean Society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27. pp. 419-449. 2020. DOI : 10.52183/KSPE.2020.27.4.419
- [17]G. B. Jo. The Explor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s through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Cluster as Student-Centered Curriculum. *Educational research*. 73. pp. 151-167. 2018. DOI : 10.17253/swueri.2018.73.008
- [18]G. B. Jo, J. H. Moon, H. S. Lee. A Comparative Study on Various Student-Centered Curriculum's Teaching Experiences Focusing on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9). pp. 335-342. 2021.
- [19]J. H. Kim, H. K. Kim, H. M. Park. The Analysis of Practice and Issues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with a form of High School Cluster programme in Gyeonggi-do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Journal of Education*. 13(1). pp. 71-103. 2018.
- [20]S. E. Lee, D. H. Jang. Issues and Tasks of Student's Selective Curriculum in High School Credit System Policy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4). pp. 109-136. 2019. DOI : 10.22251/jlcci.2019.19.14.109
- [21]S. J. Moon, J. H. Lee. A Comparative Study on Elderly Care Attitude and Dementia Communication Behavior before and after Geriatric Nursing Practice.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9(5). pp. 61-67. 2021.
- [22]Blustein, D. L. ,Ellis, M .V, Devenis, L .E.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 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rocess[Monograph]. *J of Vocational Behavior*. 35(3). pp. 342-378. 1989.
- [23]S. J. Choi. Structure of career decision-making commitment and family variables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equation model.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 [24]Taylor, K. M., Betz, M. E.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 of Vocational Behavior*, 22(1), pp. 63-81. 1983.
- [25]S. M. Jang, D. S. Im, B. K. Song. *Standardized Study on Career maturity Test*.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991.
- [26]Crites, J. O. *Career Counselling: Models, Methods &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1981.
- [27]H. O. Kim. Correlation between career maturity and related variables of adolescents. Master thesis Konkuk University. 1989.
- [28]Harren, V. A.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 of Vocational Behavior*, 14(2), pp. 119-133. 1979.
- [29]J. H. Kim, M. A. Jo. Case Study on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Promotion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the effect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consciousn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5(1). pp. 57-78.
- [30]S. J. Kim, J. Y. Choi, G. N. Lee, The effect of the SCEP program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J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 pp. 531-549. 2020.
- [31]E. Im. Exploring High School Teachers' Narrative on Career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1(3). pp. 193-218. 2008.